



◇상반된 표정. 아이들은 티없이 미소짓지만, 할머니 강 씨는 지금의 삶을 표현하듯 무표정하기만 하다.

독방 판자촌에 사는 남매의 꿈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서울 녹천교 다리길 파지공장. 파지터미가 잔뜩 쌓인 앞길을 지나서야 하천 뚝방길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선 판자촌. 그곳에 원재네 식구들이 살고 있다.

은 원재와 두 살 현정이를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급기야 원재 아버지가 저도 생 활고를 비판. 집을 나가버리면서 살림은 급격히 기울었다.

할머니 심장병 고통

아직도 냉기가 싸늘한 방안. 근 데군데 장판이 떨어져 나가 시멘 트바닥이 훤히 드러난 곳을 균용 담요가 공석 맞게 덮고 있다. 방 한쪽에 걸린 큰 달력. 할머니 병 원 가는 날, 약 타오는 날' 이라는 이들 남매의 메모들이 빼곡하다.

“부모한테 한참 귀여움 받고 자랄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하고 있 으니...” 긴 한숨을 내쉬며 강 할 머니는 약봉투를 만지작거린다.

이들 가족이 노년병 독방에 동 지를 든 것은 13년 전부터.

거창 에 살던 할머니 강 씨가 원재 들 잔치를 보러 서울에 올라와다가 아예 이곳에 눌러 앉게 됐다. 원 재 엄마가 덩그러니 ‘돌잔치’ 상 만 차려 놓고 가솔해버렸기 때문 이다. 놀랄 겨를도 없이 할머니

원재는 흥명보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요즘엔 돈 많은 사장 님이 되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은가 보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4월 4일 (목)
국정회 '불교강좌' = 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중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의 이번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회비 3만원을 내면 국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앞 국정회 사무실. (02)730-1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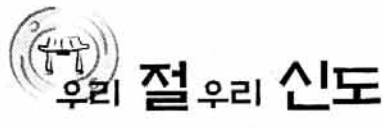
4월 5일 (금)
국정회 '불교강좌' = 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중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의 이번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회비 3만원을 내면 국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앞 국정회 사무실. (02)730-1249

4월 6일 (토)
국정회 '불교강좌' = 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중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의 이번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회비 3만원을 내면 국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앞 국정회 사무실. (02)730-1249

4월 7일 (일)
국정회 '불교강좌' = 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중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의 이번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회비 3만원을 내면 국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앞 국정회 사무실. (02)730-1249

4월 11일 (목)
국정회 '불교강좌' = 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중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의 이번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회비 3만원을 내면 국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앞 국정회 사무실. (02)730-1249

1천일 봉사 서원 '개근상 보살'



우리 절 우리 신도

도선사 삼삼각 지킴이 조정님 보살

“그 보살...? 개근상 취아해, 개근 상.”
조정님(50·정진행) 보살을 만나 러 왔는데, 어디 있던 말도 없이 영 동한 이야기만 한다. ‘학교도 아닌 절 에 개근상이라니...’ 다시 조 보살이 있는 곳을 묻자 노보살들은 삼삼각을 가르쳐 준 후 길을 재촉한다.



◇조정님 보살(왼쪽)이 도반들과 함께 제기를 갖추고 있다.

차사고 남편 견제... “불은 갇고파”

도반들 경조사 빠짐없이 챙겨

로 다닐 곳을 찾다가 도선사 석불 부 처님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그날로 도선사 신도가 됐다. 하지만 서울 생 활은 쉽지 않았다. 평범히 직장생활 을 잘하던 남편이 큰 실수를 해 사직 위기에 빠지고, 서울 생활에 적응 못 한 자녀들은 성적이 떨어지면서 문 제야로 몰리는 등 계속되는 위기가 조 보살을 괴롭혔다.

추천의 말

혜자 스님 도선사 주지

전통적으로 도선사는 기도 정진 도량으로 알려져 왔습니 다. 현재도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기도정진을 하고 있지요.



“개근상”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다. 도반들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물론, 집안 문제를 걱정 하는 신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다. 그 래서 조 보살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쳐 난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견전지용 조.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통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불제대원기업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 야외장엄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 경제적인 가격
현우기획